

# 닥터루젠 “리슬링의 무한 잠재력을 깨워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1

독일 그랑크뤼 리슬링이라고 하면 와인 애호가라고 해도 고개를 가웃거리다. 독일에도 그랑크뤼 같은 분류가 있느냐 싶어서다.

있었다. 독일어로 그로세 라게(Grosse Lage·그랑 크뤼)다. 1868년 프로이센 포도밭 등급 지도에 그로세 라게가 표시됐음을 감안하면 프랑스 부르그뉴(1935년)보다도 먼저다.

누가 앞섰느냐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와인이 시작부터 테루아와 포도의 품질을 세세히 따졌다는 것이 포인트다.

독일 와이너리 닥터 루젠(Dr. Loosen)을 이끌고 있는 에른스트 루젠(Ernst Loosen·사진)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닥터 루젠은 오로지 가장 좋은 그랑크뤼 포도밭에만 집중하며, 각 테루아가 가진 고유한 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와인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닥터 루젠은 독일 모젤강 유역에서 2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와이너리다. 에른스트는 가문의 6세이다. 닥터 루젠의 10개 주요 포도밭은 모두 그로세 라게다. 독일 와인법상 공인되진 않았지만 독일 최우수 와인 생산자 협회인 VDP에서 공식 인정



독일 와이너리 닥터 루젠(Dr. Loosen)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에른스트 루젠(Ernst Loosen)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리슬링의 다양성과 닥터 루젠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분류다.

포도품종은 단 하나 리슬링이다. 리슬링이 독일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품종이기도 하지만 특히 와인 명산지 모젤은 리슬링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에른스트가 말하는 리슬링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이다. 기후나 지역에 따라, 심지어 포도밭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는 “같은 화이트 품종이라도 샤도네이가 오코 숙성을 했는지 여부로 와인의 개성이 한정되는 반면 리슬링은 팔방미인”이라며 “섬세한 꽃 풍미에서 잘 익은 과실까지, 가벼운 와인에서 농축된 스타일까지, 드라이 와인에서 달달한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랑크뤼 포도밭에서 잘 자란 리슬링이

라면 이제 시간이 해결해준다.

에른스트는 “독일의 리슬링은 테루아를 그대로 투영하는 순수한 표현력의 직관적인 와인”이라며 “인위적인 기술은 쓰지 않고 포도 스스로 배럴 안에서 특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밝혔다.

독일 리슬링은 오랜 시간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됐지만 이제 기후도, 트렌드도 아군으로 돌아섰다.

독일 와인 산지는 서늘한 대륙성 기후다.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면 기후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안고 있었던 얘기다. 특히 모젤은 리슬링을 재배할 수 있는 최북단 산지임에도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포도를 원하는 만큼 익힐 수 있게 됐다.

젊은 세대일수록 저알코올 주류를 선호하면서 와이너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있지만 닥터 루젠



독일 와이너리 닥터 루젠의 와인들.

/아영FBC

은 그럴 필요가 없다. 닥터 루젠 와인은 도수가 보통 11.5도 안팎으로 높아봤자 최고 12.5도다.

반면 같은 리슬링이라도 프랑스의 알자스의 경우 도수가 14도 안팎에 달한다. 특히 모젤 스위트 리슬링의 경우 7.5도에 불과하다.

리슬링은 다양성 만큼 음식 페어링도 선택의 폭이 넓다.

그는 “산도가 높은 드라이 리슬링은 신선한 생굴의 미네랄과 정말 잘 어울리고, 좀 더 힘이 있는 그랑크뤼 드라이 리슬링이라면 익힌 생선요리나 봉골레 스파게티와 마셔보라”고 추천했다.

다음은 우리의 귀가 솔깃할 맵고 짠 음식과의 페어링 꿀팁이다.

에른스트는 “오코 뉴앙스는 매운 맛을 쓴 맛으로 바꿔놓고, 알코올은 도수가 높을수록 매운 맛을 가속화시킨다”며 “맵고

짠 음식이라면 단맛이 한 스푼 들어가면 밸런스가 잘 맞는 것처럼 살짝 단맛이 도는 리슬링이 환상적으로 어울린다”고 말했다.

에른스트는 일흔 생일을 앞두고 있지만 리슬링의 잠재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끊임없이 구상 중이다. 독일 본토 와이너리 인수에 이어 미국과 호주, 부르그뉴에서도 와인을 만들고 있다.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묻자 계획은 없다면서도 “왜냐(Why not)?”를 외친다.

그는 “3년 전에도 나이가 많아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에 법인을 만들고, 부르그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였다”며 “그렇듯 좋은 품종으로 좋은 와인을 만들고 싶을 때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 문화 단신

### 치지직, ‘FIFA 북중미 월드컵’ 생중계

크리에이터 연계 ‘같이보기’ 서비스 AI 활용 경기 콘텐츠 대폭 강화 방송 보면서 FC 온라인 미니게임도

네이버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한다.

치지직은 월드컵 전 경기 생중계와 함께 인기 스트리머 한동숙, 울프를 비롯해 숏포터브, 이스타TV, 채널십오야, 플레이브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 채널과 연계한 ‘같이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치지직은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가운데 가장 먼저 같이보기 기능을 도입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48개국에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 104경기를 실시간 소통형 콘텐츠로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경기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경기 중에는 실시간 AI 슛폼 클립을 제공하고, 종료 직후에는 선수별·경기별 VOD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업로드한다. FIFA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 전 선발 라인업과 전술, 관련 포인트를 분석하고, 경기 후에는 선수 평점과 경기 분석, 하이라이트 등을 담은 AI 브리핑도 제



네이버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한다. /네이버 공할 예정이다.

게임 콘텐츠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이용자는 치지직 내 축구와 ‘FC 온라인’, ‘FC 모바일’ 카테고리 방송을 시청하면서 화면 안에서 FC 온라인 기반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다. 벵스와 협업해 양사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게임 콘텐츠 추천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축구 팬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월드컵 전용 라운지를 운영하고, 승리 확률과 우승팀 예측, 선수 기록, 라운드별 예상 진출 확률 등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 카카오톡, 축구 국가대표팀 온라인 응원

‘카톡응원전’ 통해 커뮤니티 강화 오픈채팅에 전용 응원방 개설 퀴즈 이벤트서 유니폼 등 증정

카카오톡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한 온라인 응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응원하는 참여형 캠페인 ‘카톡응원전’을 통해 스포츠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다.

11일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응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참여형 캠페인 ‘카톡응원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커뮤니티에 축구 팬들을 위한 전용 응원방을 개설한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레전드방’과 ‘아이콘방’, 이미지 중심으로 가볍게 소통하는 ‘고독방’ 등 총 3개 채널을 운영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응원 환경을 제공한다.

응원방에서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축구 퀴즈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26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벵스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국가대표팀 선수 이미지로 프로필 꾸미거나 준비된 응원 문구를 함께 외치



카카오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카톡응원전 캠페인 진행 대표 이미지. /카카오

는 등 채팅을 활용한 이색 응원 콘텐츠도 선보인다.

‘카톡응원전’은 카카오톡 세 번째 탭인 ‘지금’ 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 벵스의 온라인 축구게임 ‘FC 온라인’과 함께하는 1차전을 시작으로 18~19일 2차, 24~25일 3차까지 총 세 차례 운영한다. 경기 당일에는 전·후반전과 하프타임에 맞춰 이벤트와 자유 응원 시간이 마련된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슛폼 축구 영상과 탭별 오픈채팅 커뮤니티, 축구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축구봇’ 등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 카카오게임즈 ‘도깨비의세계’ IP로 전통문화상품 개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맞손’

카카오게임즈는 11일 자회사 슈퍼캐츠와 함께 신작 MMORPG ‘도깨비의세계’ IP를 활용한 전통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기업연계 전통문화상품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슈퍼캐츠는 ‘도깨비의세계’의 한국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전통 복식인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 내 코스튬과 실물 의상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는 전통문양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한복 브랜드 ‘오우리’도 참여한다.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며 게임 IP와 K-컬처를 연결하는 콘텐츠 확장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전통문화가 지닌 상징성과 미학을 게임 콘텐츠에 녹여내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美 공습에 이란 호르무즈 봉쇄...긴장 재고조 /사진 뉴시스  
▲트럼프, 백악관 UFC경기장 건설에 7개 부처와 6000만 달러 동원

▲빌 게이츠 “엑스타인 만난 건 판단 착오...불륜 사실 알고 압박”  
▲오픈AI “중국, 챗GPT 악용해 美 AI 여론전 시도”

▲“유럽인 10%만 美 동맹으로 인식...트럼프 취임 이후 하락세”  
▲“北 우라늄 농축 곧 75%까지 확대 가능성”-런던 ‘버티크’ 분석